

# 7

후원회 소식지 제1호

2001

# 노하우

노무현과 하나되는 우리들

(www.knowhow.or.kr)

발행인 :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위원장 : 노무현) 후원회 / 편집인 : 윤태영 / 발행일 : 2001년 월 일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3층 노무현 후원회



## 목 차

- 2..... 소식지 발행에 부쳐
- 3..... 여론조사 수직상승
- 4·5 ..... 조선일보는 이회창 편들기 중단하라 - 시사저널 인터뷰
- 6..... 노무현의 희망열차(강연) · 노무현의 용기
- 7..... 노사모 행사
- 8..... 노무현과 국민사가극 장기 베스트셀러, 후원회 소식

32803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지난 3월말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곧바로 인사드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일정에 매달리다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당무에 복귀하여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한편,  
지구당을 비롯한 전국의 각종 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연활동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저의 정치적 비전과 포부를 직격직으로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는 등  
정책비전의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학습에 몰두해왔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도약은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1세기의 거친 바다를 개척하는 뉴 프런티어의  
정신으로 저는 정치·경제·사회·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올림



# 노무현 상임고문,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노무현 상임고문의 지지도가 확고해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인제 · 노무현의 양자대결 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1년 전 16대 총선에서 낙선했을 때만 해도 언론은 차기 대통령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처럼 1년만에 지지도가 수직 상승하여, 비록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최근 노무현 고문의 지지도 동향과 변화 추이를 간략히 소개한다.

## 중앙일보 정치 여론조사

李회창 총재는 노무현 고문과의 대결에선 45.9% 대 36.0%, 고건 서울시장과는 47.4% 대 32.8%, 김종권 대표와는 54.0% 대 22.5%, 한화갑 위원은 56.2% 대 17.2% 순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일보 여론조사

[부산·서울·광주 정치의식 조사] 이회창 대항마 노무현·이인제 순  
지역시민단체인 (새)목요학술회가 월간 '시민시대' 200호 발간 기념으로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 부산 광주 시민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내놨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이회창 총재로 가정할 때 민주당 대항마로 노무현 상임고문, 이인제 최고위원, 고건 서울시장 등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후보별로 노무현 고문은 부산과 서울에서 민주당내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 우세를 보였다. 노 고문의 서울, 부산·광주에서의 지지율은 각각 23.0%, 19.8%, 52.9%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부산과 서울지역 지지율도 노 고문에 뒤진 반면 광주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 시사저널 여론조사

〈시사저널〉의 이번 조사는 여권의 이련 영남 후보론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 되어 있는 이회창 총재와 맞대결을 붙일 상대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 김혁규 경남도지사 · 정몽준 무소속 의원 ·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 · 김종권 민주당 대표 등 다섯 사람을 골랐다. 이들이 그동안 '영남 후보'로 자주 거론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여론 조사의 단순 지지율 조사에서도 현재 영남 민심을 얻고 있는 빅5로 꼽혔다.

## 매일신문 여권 대선후보, 노무현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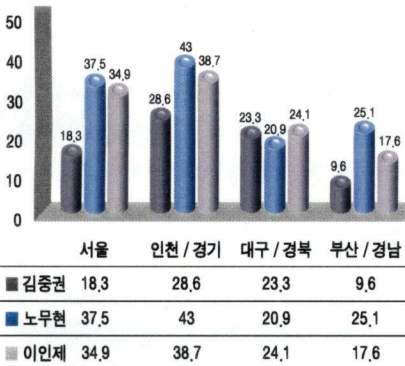
지역 여론조사기관인 에이서리서치가 매일신문, 대구MBC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고문(20.2%), 이인제 최고위원(17.2%), 무소속 정몽준 의원(11.4%), 김종권 대표(10.4%), 김근태 최고위원(5.6%), 이한동 총리(5.3%)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고 무응답자도 29.9%나 됐다. 이를 TK와 PK로 나눌 경우 TK지역에서는 김 대표가 17.1%로 1위, PK지역에서는 노 고문이 23.7%로 1위였다. 이 위원은 두 지역에서 모두 2위였다. TK지역만 볼 때 지난 1월과 비교하면 김 대표는 9.6%에서 17.1%로 급상승했고 노 고문은 8.8%에서 14.9%로, 이 위원은 11.1%에서 15.7%로, 김 위원은 1.2%에서 5.1%로 지지도가 올라갔다. 반면 이 총리(5.8%)나 정 의원(9.2%)은 별 변화가 없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무응답층이 24.4%에서 32.3%로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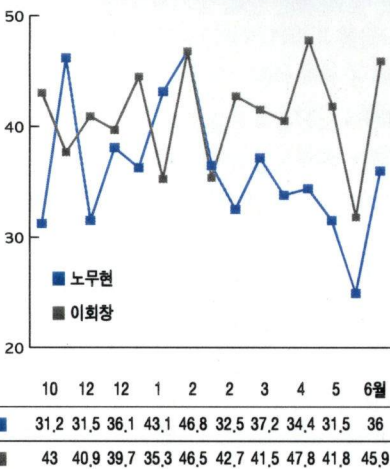
### · 영남출신 대표 정치인

PK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고문이 28.4%로 1위였다. 무소속의 정몽준 의원이 13%로 그 뒤를 이었으나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10%대에 훨씬 못 미쳤다.

對 이회창 가상대결



노무현 對 이회창



언론보도 모음/ 시사저널 인터뷰 양면 전제

# “「조선일보」는 이회창 편들기 중단하라”

최근 민주당 당보가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돌출 사건인지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언론 문제에 관한 한 말을 아끼고 있다.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만이 발언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뿐이다. 언론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고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 프로필

1946년 김해 출생.  
부산상고 졸업.  
대전지법 판사.  
제13·15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해양수산부장관.



## 최근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정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자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 언론이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공세로부터 현정권과 개혁 세력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수구 언론의 극단적 공격에 의해 오도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 자신을 방어하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가만 있어도 <조선일보>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어떤 의도로 공격하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서 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사 세무 조사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정권이 막판에 거대 언론과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정치적 이유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언론 개혁을 원하는 민심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기득권 언론은 현정권을 깔보게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 현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노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무차별 공세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방법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언론이라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격이나 비판은 자신들의 의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짜 맞추고 제목을 교묘하게 붙여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고약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교만함입니다. 현정권을 공격해 민주당의 재집권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다음 정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언론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길이지요. 외국 언론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신문사 편집권과 인사권 독립을 단행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대한매일> <부산일보> 같은 신문은 편집권 독립을 자율적으로 제도화한 경우 아닙니까? 잘못된 언론을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편집권이 독립된 신문을 구독하는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우영 회장입니다. 방회장이 신문 제작에서 손을 떼고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언론 자유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조선일보>의 중요 간부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없다 고 단정하더군요. <조선일보>는 지면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이회창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DJ 정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이회창씨에 대해서는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언까지 합니다. 이회창 기관지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 <조선일보>가 이회창 총재에게 편향되었다고 볼 사례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관련 보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증거도 없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주장하는 참여 인사 내사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체제나 진배없다'고 흑세무민을 해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조건 정당화하면서 있지도 않은 내사설을 가지고 전체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조선일보>가 왜 이총재 편들기를 한다고 봅니까?

그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일제와 독재 정권에 결탁해 줄곧 불의한 권력을 변호해 왔고 그 과정에서 거대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그 힘을 이용해 권력 창출에 개입하고 권력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YS 정권 때도 자신들이 지원한 YS 정권이 대북 유화 등 개혁 정책을 시행하니까 그 이후부터 문민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이회창 편들기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을 부활시키고 개혁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 YS가 정권 초기에 그랬듯이 이총재도 대통령이 되면 <조선일보>와 길을 달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YS와 이회창씨는 다릅니다. YS는 수십 년 동안 군사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화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회창씨는 군사 독재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기득권 세력,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메인스트림에 밀착해서 살아 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에서 <조선일보>와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 이른바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를 특히 비판하시는 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족벌 체제이고 보수적인 논조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수 신문일 뿐이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치와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교만한 권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수 논조 신문이 한두 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 의지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 <조선일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선일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우영 회장입니다. 방회장이 신문 제작에서 손을 떼고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언론 자유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대주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 그쳐야지 인사권과 편집권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회장이 손을 떼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되찾게 되면 <조선일보>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 맞서 정치인 중에서 거의 혼자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일부 신문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전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문들도 있고, 방송도 언론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비제도권 매체도 엄청난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때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당장은 저에게 불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김종민 기자 jm@e-sisa.co.kr



# 노무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팬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창립 1주년 행사 [www.nomuhyun.org](http://www.nomuhyun.org)  
nosamo.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반드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며 대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6월 6일 오후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대덕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노사모 1주년 총회’에서 노 고문은 연설을 통해 “2002년 대선에서는 영호남은 물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승리한 후보에게 흔쾌히 박수를 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감정과 정면에서 대결해온 내가 민주당 후보는 물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의 흐름이 나에게 있다”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또한 그는 “민주당 후보가 될 자신이 있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며 나는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고문은 20여분간의 연설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이 비추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부딪혀 빛나는 것”이라며 “진정한 스타는 국민들의 소망이 비추는 곳에서 비켜서면 안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비켜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맞서 이기는 것은 역사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노 고문은 이미 자신의 대선출마 ‘선언’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지만 이번처럼 ‘민주당 경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장에서 대구 경북 노사모 ‘대표일꾼’ 김진향 씨는 “과연 우리 정치사에 이런 자발적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를 가졌던 정치인이 몇이나 있었느냐?”며 “노 고문은 분명 행복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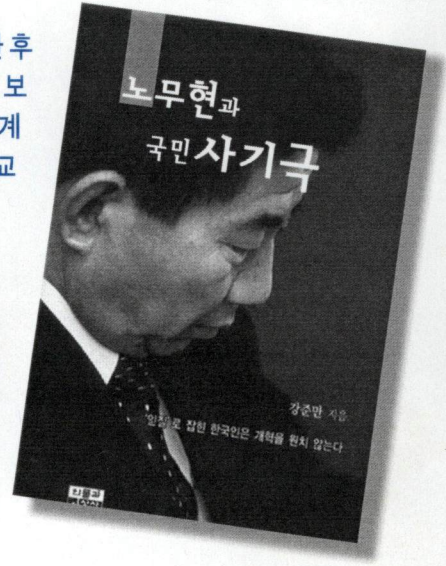
(「오마이뉴스」에서 일부 전재)



#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 장기 베스트셀러 진입

(인문리사4. 77)  
강준만 교수의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이 교보·영풍·을지서적에서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후 그 인기가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이 책은 정치인의 책으로는 보기 드물게 장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를 것임이 확실하게 전망되고 있다. 2001년 출판계와 서점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화제의 책, '노무현과 국민사기극'. 여기서는 강준만 교수의 글과, 관련 서평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인은 정치가 제일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 기존 정치판의 문화에 저항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사기극을 천역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정치를 사궁창에 처박아 놓고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100% 전가시킨 다음에 다음 "쇼"를 기다린다. 나는 이러한 어이없는 "국민 사기극"을 끝장낼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신과 냉소와 혐오의 바다에서 빠져 나와 기존의 "정치 죽이기"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도 부과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강준만 교수



이 책은 내게 있어, 우리 정치에 있어 하나의 희망이자 등불이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나는 노무현을 대부분이 그러하듯, - 조금 튀는 정치인, 대통령감이 아닌 정치인 어떠한 비전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여겨 왔다. 다만 언론과 전쟁을 치루었던 지라, 그 점을 매우 높이 생각해서 그나마 다른 정치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책을 보고 나니 나 역시 국민 사기극의 인질이 아니었던가! 내게 있어 이 책은 나의 무지를 깨우쳐준 책이기도 하지만, 내겐 우리 정치의, 우리 앞날의 희망을 밝혀주는 책이었다. 대부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만, 이러한 정치인이 있었다니. 그 썩은 정치판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그리고 자신의 신념하나를 곳곳하게 지켜오신 분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 독자 서평(교보문고 홈페이지)

## 후원회 안내

### 힘내라. 노무현!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RS로 후원하기 (02-7000-337)

깨끗한 정치, 당신의 전화 한통화로 이루어집니다.

02-7000-337을 누르시고, 후원하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만원이 자동납부 됩니다.

일반전화는 1일 1회에 한하여 후원이 가능하며 개인용 휴대전화는 무제한입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10초 이내에 전화를 끊었을 경우에는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하기

- 1년에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한도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 회원이 아닌 분도 1회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후원금액과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통장, 도장, 신분증, 대리시 위임장)

#### ■ 후원회 사무실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42-19 2F <부산북·강서를 지구당>

전화 : 051-971-0001 / Fax : 051-971-0117

02-3775-1663 / 02-3775-1664

#### ■ 자동납부 계좌번호

부산은행 035-01-048675-1

주택은행 926102-01-143468

국민은행 067-01-0514-042

예금주 최도술 (노무현 후원회)